신도조직화 '신도품계' 대전환 모색

조계종 포교원, 종책연찬회서 현황 · 개선점 논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1년 신도 조직화 일환으로 도입된 신도품계제도를 전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7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도품계, 전환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제76차 포교종책연찬회'를 열고 신도품계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신도품계는 발심, 행도, 부동, 선혜 품계로 나뉜다. 이 중 발심품계는 신도등록과 함께 신도증이 대신해 적용된다. 사실상 신도 입문자에게 주어지는 품계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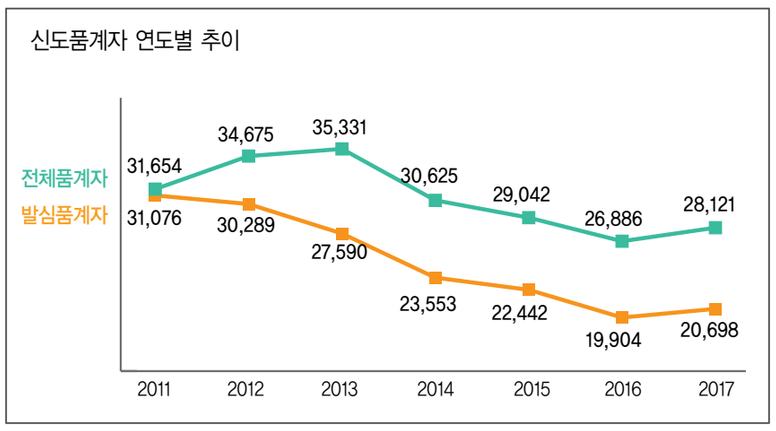
문제는 이 같은 입문자를 대상으로 한 품계부터 매년 줄고 있단 점이다. 발심품계자는 2011년 3만1076명에서 2012년 3만289명, 2013년 2만7590명, 2014년 2만3553명, 2015년 2만2442명, 2016년 1만9904명, 2017년 2만698명으로 감소했다. 발심품계자를 배출하는 사찰 수도 2011년 1158곳, 2012년 1123곳, 2013년 1056곳, 2014년 1021곳, 2015년 991곳, 2016년 988곳, 2017년 983곳, 2018년 793곳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와 함께 상위 품계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사찰에서 활동하거나 포교사로 나아가는 품계인 부동품계자는 2011년 531명을 시작으로 2012년 4297명, 2013년 4548명, 2014년 4694명, 2015년 3695명, 2016년 4303명, 2017년 4451명 등으로 정체 상태다. 전체 품계자 수도 제도 시행 후부터 올해 5월 18일까지 총 23만2604명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실제 사찰과 불자들 사이에서 신도품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는 점이다. 2016년 포교원이 권역별 교구신도회 임원간담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334명 중 54%가 신도품계제도에 대해 알지 못했다.

발심 품계자 매년 감소세
8년간 23만 명 품계 받아
권리 · 의무 모호, 인식 부족
"제도 취지 공감대 확산해야"

이동선 포교원 교화팀장은 "제도 도입 취지는 신도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 등이었지만 당초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라며 "사찰에서도 품계증 정도는 수계식에 사용할 뿐 활용되지 않는다는 공통된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기룡 동국대 교수는 신도품계제도의 미정착 원인을 △신도품계 유무에 따른 사찰운영 차이 부재로 스님들의 무관심 발생 △기복중심 신앙으로 품계 관심 저조 △품계 이익과 불이익이 없고, 강제력 부재 △제도 도입 시 일반신도 대상 조사 미흡 등으로 분석했다.

조기룡 교수는 "주지 인사 평가제에 신도품계제 시행여부를 두는 등 강제 유인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교학 위주 품계 수여 외에도 신행에 따른 품계 수여의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 교학과 신행이 결부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품계별 품서식에 차등을 두고, 각 법회 등에서도 품계별 권한과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실상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할 과정이 있을 때 성취감을 주고, 동기부여가 된다. 신도품계는 신도의 교육단계, 직무부여 등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서 연구원은 "품계 간 기간을 늘려 권위를 높이고, 품계에 따라 사찰 내외의 활동을 부여하는 등의 개선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끝으로 "품계제도를 통해 종단이 이뤄낼 것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먼저 사찰운영에 있어 신도 조직화가 어떤 이점이 있는지, 품계제도 도입을 통해 어떤 것을 얻어 낼 지부터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행위에 그치지 말고 전법, 신도조직화를 통한 불교 중흥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A1면 '대체복무제'에 이어〉

따라서 각 종단과 시민단체, 학계가 머리를 맞댄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불교는 큰 틀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잊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2001년 불자로서는 최초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하고 수감생활 한 오태양 씨는 "승군의 사례와 대체복무제를 놓고 불교적으로 해석하긴 쉽지 않겠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의 결과가 감옥뿐인 것은 문제"라며 "원효대사가 군인 신분으로 전쟁에 나갔다가 친구의 죽음을 목도하고 출가했듯이 불교계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승철 교수는 "실제 스님들이 전쟁터에 나간 사례는 임진왜란 정도다. 이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며 "역사 속 승군이 살생을 위해 만들어진 것만은 아니다. 성벽이나 제방을 쌓고, 민초를 위로하는 등 현재 논의하는 대체복무제와 같은 활생의 가치를 가진 일이 더욱 많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불교국가인 대만의 대체복무제가 '활생'의 의미를 잘 살리고 있어 검토해볼 만하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대만의 대체복무 기간은 4~6개월(현역 4개월)이며, 합숙형태로 근무한다. 신청자는 2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증명해야 하며, 복무 분야는 경찰 · 소방 · 병원 · 양로원 · 공공건물 관리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불교계 양심적 병역 거부 선언은 오태양(정토회) · 김도형(대불련) 불자 등 서너 건이 있었다. 오태양 씨는 2004년, 김도형 씨는 2006년 병역법 위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대한불교청년회, 불교인권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참여불교재가연대 등은 성명을 내고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와 대체복무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맞게 보편적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계종을 비롯한 종단들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문인 후학들 무산 스님 추모 문집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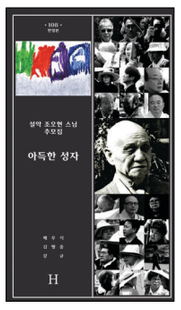
김형중 · 배우식 · 강규, 49재 맞아 헌정 형식으로 펴내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조실 설악 무산 스님의 문학사상을 그리는 후학 문인들이 추모문집 〈아득한 성자 · 사진〉를 발간했다.

추모 문집 작가로는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형중 동대부여중 교장과 무산 스님의 선시조 분석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배우식 시인, 설악산 인근에서 수의사로 일하면서 문단에서도 활동중인 강규 시인이 참여했다. 모두 무산 스님을 흠모하는 후학들이다.

문집은 문인들의 추모시와 추모사, 선시조 따라 읽기, 무산 스님의 문학에 대한 평론들이 수록됐다.

실제 평론에 참여한 김형중 교장의 글에서는 무산 스님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드러난다. 김 교장은 "무산 스님은 입적까지 불교 문학계를 대표하는 시승(詩僧)으로 한국문학사에서 최초로 시조 형식에 선시를 도입한 선구자이며, 본격적으로 한글로 선시를 구가했다"며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 이후 불교시의 성과 가운데 으뜸"이라고 찬탄한다.



무산 스님을 친견하며 그의 선시조를 박사 학위 주제로 삼고 연구했던 배우식 시인의 고백의 글은 더욱 절절하다.

틈틈이 친견하며 부자의 정을 느꼈던 배 시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스님과의 바다처럼 넓고 깊은 정을 내 안에 보물처럼 간직한 채 스님을 사사로움의 경계를 넘어 우리들의 성자님 혹은 대스승님으로 모시고자 한다"면서 "생사까지도 초월해 해탈의 경지를 보여주신 스님이 지금도 뼈 아프도록 그립다"고 추모한다.

신성민 기자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37助道品 초기불교의 37가지 수행법

불교의 근본 교리인 연기법, 4성제, 12처, 18계, 5온을 공부하면서 고(苦)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고에서 벗어나는 길, 그러니까 깨달음에 이르는 37가지의 수행법 '37조도품(助道品)'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7항목으로 4념처, 4정근, 4신족, 5근, 5력, 7각지, 8정도입니다. 37보리분법(菩提分法), 37각지(覺支)라고도 합니다.

*4념처(四念處 · 四念住)는 몸과 느낌, 마음, 법을 통찰하여 무상, 고, 무아를 깨닫는 4가지 수행법입니다.

① 신념처(身念處) : 호흡과 동작을 관찰, 몸은 부정(不淨)한 것임을 알아차림. ② 수념처(受念處) : 느낌에 따르는 고통의 생멸을 봄. ③ 심념처(心念處) : 생멸변화하는 마음의 무상함을 관함. ④ 법념처(法念處) : 자아의 실체가 없는 무아를 알아차림.

4념처는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마음공부로서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위빠사나(觀) 수행입니다.

4정근(四正勤 · 四正斷)은 선법(善法)을 증대하고 악법을 멀리하는 4가지 바른 노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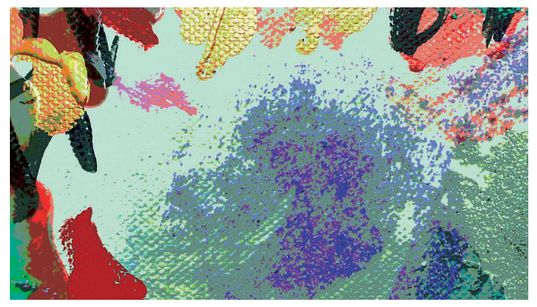
① 단단(斷斷) : 이미 생긴 악을 없애려는 노력. ② 율의단(律儀斷) :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을 미리 방지. ③ 수호단(隨護斷) :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을 생기도록 노력. ④ 수단(修斷) : 이미 생긴 선을 더욱 증대시키는 노력.

4신족(四神足 · 四如意足)은 신통을 얻기 위해 선정에 드는 4가지 성취 방법입니다. 여기서 신통이란 삼매가 깊어져 8고(苦)에서 벗어난 마음입니다.

① 욕신족(慾神足) : 선정에 들기를 원함. ② 정진신족(精進神足) : 선정에 들려고 노력 ③ 심신족(心神足) : 마음을 가다듬음. ④ 사유신족(思惟神足) : 사유하고 주시함.

5근(五根)은 도의 뿌리를 깊이 내려 번뇌를 여의고 깨달음에 이르는 5가지 기능입니다.

① 신근(信根) : 믿음 4불괴정(不壞淨). ② 정진근(精進根) : 정진 4정단. ③ 염근(念根) : 마음챙김 4념처. ④ 정근(定根) : 삼매 4선(禪). ⑤ 혜근(慧根) : 통찰지 4성제.



조도품-백천만겁난조우 그림 · 조향숙

'4념처 · 8정도' 핵심 수행
계정혜 삼학에 포함
서구, 마음치유에 활용

5력(五力)은 5근보다 진전된 수행 단계로 일체의 장애를 정화하는 5가지의 힘입니다.

7각지(七覺支)는 깨달음의 지혜를 증득하는 7가지 인자로 念, 擇法, 精進, 喜, 輕安, 定, 捨입니다.

8정도(八正道)는 열반에 이르는 8가지 바른 수행의 길입니다. 8정도가 계 · 정 · 혜 삼학의 수행 방법인 것처럼, 37조도품은 삼학에 포함됩니다.

*37조도품의 핵심은 4념처(위빠사나 · 觀)와 8정도(사마타 · 止)입니다. 그러므로 37조도품은 지관법과 간화선 수행의 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마음챙김 사념처를 스트레스 완화와 우울증 치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뇌과학, 심리학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7조도품은 고(苦)에 묶여 있는 자기를 해방시키는 수행입니다. 맹구우목(盲龜遇木)이란 말씀처럼 백천만겁난조우한 불법의 인연이 헛되지 않도록 근기에 맞는 도품을 택하여 행복의 숲을 가꿉시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2018년도 하반기 출가안내

내 생에 가장 빛나는 선택
It's now or never

출가

지금 여기, 완전한 행복!

• 집중등록기간 | 2018년 7월 1일 ~ 2018년 8월 31일 (2019년 3월 수계 예정)
※ 등록기간은 출가 후의 수계일정에 따른 권장기간이며,
출가는 등록기간과 상관없이 365일 가능합니다.
• 대 상 | 대자유인의 삶을 꿈꾸는 이라면 누구나
(1969년 12월 31일생 까지, 만 13세 ~ 50세 이하)
• 출가가능 사찰 | 전국의 조계종 사찰이면 어디나 가능
• 등 록 절 차 | ① 전국에 있는 모든 조계종 사찰 중 본인이 원하는 사찰을 선택
② 사찰에 거주하는 스님과 출가에 대해 상담 후 출가
• 혜 택 | ① 출가 후 생활에 필요한 주거, 교육, 의료 등 일체 지원
②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③ 입원진료비 · 요양비 지원
• '소년(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 청년출가자 (만19세 이상 만30세 이하)'의 특별한 혜택
① 중앙승가대학교, 동국대 불교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등록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② 대학원 진학 시 장학지원
③ 군법사 지원 시 특별 선발
※ '소년출가자'는 6개월간의 행자교육과정이 면제됩니다.

• 문의 및 안내전화 : 02)2011-1801 / 개인출가상담전화 : 1666-7987
• 자세한 사항은 조계종 출가사이트 monk.buddhism.or.kr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